



성대한 축제마당에 어우러지던 소리자락들

《김금화의 무가집》
펴낸 김금화씨

꾸준히 기록해놓은 자료가 완성단계에 이른 것이 사년 전이었고, 이를 정리하여 책으로 묶는 데 또다시 삼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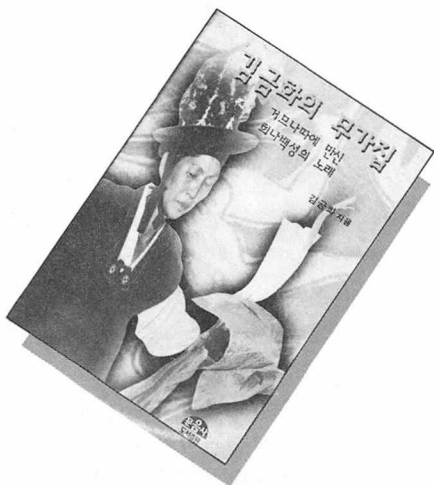
“책을 냈다는 사실보다 영영 잊혀질 지도 모를 많은 사실들을 후대에 전할 수 있게 된 점이 기쁘고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네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어울려 놀았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만이라도 요즘 젊은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같은 고마움과 기대는 그녀의 절박한 ‘제자 욕심’과 맥락을 같이한다. 나이를 속일 수 없어 굶는 횡수를 줄이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는 김금화씨는 요령만 조금 익히면 슬하를 떠나버리는 경박한 제자들의 뒷모습에서 사라져가는 곳의 뒷모습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굿이요? 요즘으로 치면 성대한 축제죠. 누가 무당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신들린 듯 춤을 추고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짓’(익살)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웃음바다가 되기가 일쑤였구요.”

그 흥겨웠던 잔치마당을 회상하다가 어깨죽지가 들썩여지자 김금화씨는 내친 김에 소리 한자락을 흥얼거린다.

—한동림 기자



만신 김금화씨(65, 무형문화재 제82호)가 무속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집대성하여 책(문음사)으로 출간했다. 구승되어온 무속을 무당 자신이 책으로 엮어낸 것은 최초의 일인데다가 황해도 무속에 대한 백과사전적 성격을 띤 무속자료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세상이 변했고 굿도 변했습니다. 너나없이 어우러져 춤과 소리, 걸찍한 육담과 왈자한 웃음으로 온동네가 며칠 밤낮을 들썩거리던 잔치판은 사라지고 대신 약식으로 치러지는 굿만이 이따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닷새가 넘도록 열렸던 굿이 지금은 하루에 다 치러지고 있을 만큼 간소화된 까닭에 굿을 구성하는 적지않은 부분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김금화씨는 안타까워한다. 이처럼 굿이 쇠락하게 된 계기는, 70년대에 전국을 휩쓸었던 새마을운동이었다. 미신으로 내몰리면서 당집들이 헐려나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김금화씨는 이대로 무속의 명맥이 끊길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가 머리속에 담겨 있는 ‘소리’들을 틈나는 대로 활자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굿판에서는 술술 나오던 소리가 책상 앞에만 앉으면 생각이 나질 않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막혀 있던 부분이 굿을 하다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굶는 중간에 짬이 나는 대로 주위에서 얼른 눈에 띄는 종이조각, 이틀테면 편지봉투나 신문지 등에 그 구절을 끄적여두곤 했다. 그렇게 30년간



시스템 개혁만이 통일을 이루는 길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
펴낸 지만원씨

지만원씨는 이 책에서 통일문제와 사슬처럼 얽혀 있는데도 마치 별개의 문제처럼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던 북한핵문제며 군축문제, 우리 군대의 문제, 그리고 평화협정 문제 등을 꼼꼼하게 그러나 과감하게 분석, 비판한다. 미국에 의해 손이 묶여 핵개발을 저지당했던 남한이, 미국이 감당해야 할 북한핵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경수로 건설비 40억을 쓰고도 무슨 일을 했는지 의식하지 못한다거나, 문민정부 등장 이후 통일원 장관을 6번이나 바꾸고, 대통령의 감정에 따라 북한을 동포로 혹은 적으로 대접한다며 우리 정부의 원칙도 논리도 없는 대북한 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허구에 찬 통일논리로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부으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당잡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하루 속히 종결돼야 합니다.”

결국, 그는 이 책을 통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회전반의 시스템 전환을 역설한다. 그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후전선을 국경선으로 공식화하고 남북한이 영구분단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박남정 기자

미해군대학원(NPGS)에서 시스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유일한 한국인인 지만원(55, 군사평론가)씨가 세상을 보는 시각은 남다르다. 가령 사람들이 줄을 잘 안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은 질서의식이 없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줄을 서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남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의식개혁이나 부정부패척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할 때 그는 시스템 자체의 결함은 없는가 먼저 살핀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자살한 사회현상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문제, 군사문제, 정치문제, 나아가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그가 최근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자작나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아직껏 누구도 꺼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통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꼬집어낸다. 이는 통일을 이룰 수 없고 바라지도 않는 남, 북한과 주변국가들의 시스템의 문제들이기도 하다.

“통일을 이루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통일’에 대한 욕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형제처럼 지냅니다. 이들 사이에 통일이라는 문제가 개입했다면 이들도 우리처럼 불꽃 튀는 긴장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 속에는 평화보다는 긴장이, 화해보다는 적대감과 경계의식이, 상호존중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밝히는

